

일본의 도시 농산어촌교류활성화기구를 찾아서

최동주 박사
(본회 사무처장)

본 협회에서 지난해부터 전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도·농 녹색교류(그린투어리즘)를 더욱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고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사업을 배우기 위해 본인과 i4man의 조일행 대표는 지난 1월17일 일본 (제)도시-농산어촌교류활성화기구(이하 약칭 도·농교류기구)를 찾았다.

도·농교류기구는 행정개혁에 의한 신농업기본법(2001년)에는 도시-농촌교류가 농촌진흥정책의 주요정책으로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그린투어리즘(GT)과 도시-농촌교류의 전국적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2001년 4월에 기존의 농림어업체험협회(1983년창립), 후루사토(고향)정보센터(1985년 창립), 21세기 마을만들기塾(1990년 창립, 인재육성과 마을 가꾸기)을 통합 발족시켜 도시주민의 자연·고향 지향과 그에 대응한 풍요로운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려는 농촌의 뜨거운 열의를 연결시켜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으로 새로 태어났다. 또한 도시와 농촌이 하나가 되어 상호교류와 농촌활성화를 위한 국민적 운동을 전개하고 자연과 조화된 풍요롭고 윤택한 사회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오전 10시에 도쿄역 근처의 야에수 不二빌딩 8층에 자리잡고 있는 도·농교류기구의 日野사무국장과 山口인재개발추진부장 그리고 山浦정보담당자를 방문하여 사업과 업무내용을 들었다.

1. 그린투어리즘 등 도시-농촌 교류촉진사업

1) 전국그린투어리즘협의회 : 350여명의 도시, 농촌 회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특히 관광업자나 기업체임원, 노동조합관계자 들도 포함되어 있어 세미나, 교류회 등을 토해 전국적으로 GT 파트너 만들기, 상호정보교환을 통한 GT 보급과 추진을 꾀하고 있다.

2) 농림어업체험 등록제도 : 그린투어리즘법에 입각해 GT의 핵심활동인 농작업이나 농촌생활의 즐거움의 체험을 담당하는 민박의 안전성과 안심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약 600농가를 농촌민박업체로 등록시켜 도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인스트럭터 등 인재 육성지원 : GT을 추진하는 지도자 등 인재육성을 꾀하기 위해 「도시-농촌교류스쿨」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이 스쿨에는 지도자과정(지역 안내자→체험지도자, 계획수립자코스)과 민박과정(개업→경영코스)를 운영하여 2001년에 200여명이 수료하였으며, 향후 연간 300~400명의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4) 체험농림어업추진 : 초·중·고생에게 교육의 일환으로 농촌의 학습체험과 도시주민에게 농업체험기회 제공으로 도·농 교류촉진과 농촌의 이행을 증진시킨다.

2002년 4월부터 전국 학교의 주5일 수업제 개시와 더불어 교과과정 개편에 의한 종합학습시간제의 운영으로 학교 정규교육의 일정 부분을 농촌 농



업체협이 담당하게 되어 GT의 중심사업으로 자리 매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 일본의 관광업자인 JTB는 GT상품을 개발하여 도시 학생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2. 도시농산어촌의 정보교류 촉진을 위한 웹숍「후루사토이치바(故郷市場)」정보교류를 통해 사람과 물자의 교류를 촉진-

1) 후루사토 정보제공과 도시민의 니즈 파악 : 농촌의 경관, 전통문화, 특산물, 이벤트 등 고향정보를 수집정리하여 인터넷, 책자, 미디어를 이용하여 도시주민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통합이후 농촌특산물을 도시에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도시민의 고향정보 조회나 상담에 응하고 있다. 또한 도시민의 욕구를 파악하여 농촌에 제공하며, 지역활성화 지도자에게 조언을 하고 있다.

2) 지역식품의 전자상거래 추진 : IT혁명에 대응하여 지역식품의 전자상거래를 추진과 지역 식품의 유통촉진을 촉진하고 있다. 인터넷상의 버추얼 몰(가상 시장)을 개설하여 농촌 특산물 검색시스템(상품별, 지역별) 구축으로 지역특산물의 거래 촉진과 택배배송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후루사토이치바(故郷市場)」는 주로 중산간지역의 특산물의 유통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농가당 월 이용료는 2,500엔 정도이고 현재 1,300여 품목을 상장시켜 놓고 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 형성으로 우송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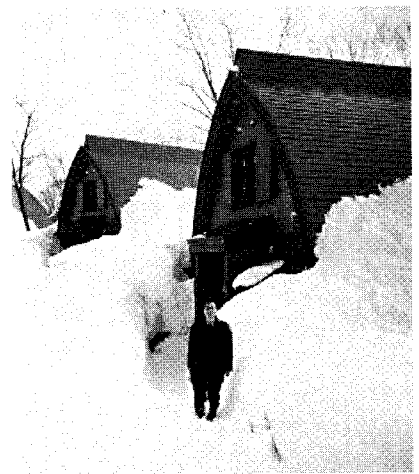
3.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만들기

1)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추진 :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 형성, 전통문화의 보전, 쾌적한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고 있다. 경관 콘테스트, 전통문화의 보전·계승 실태 조사와 이에 기여한 사람에게 표창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전통민가(카야부키 민가)를 3만 호정도를 파악하여 이의 보존방법을 문화정이 연구하고 있으며, 교류를 위한 레스토랑과 숙박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2) 아늑한 교류공간형성 : 체재형 시민농원(클라인 가르텐)을 파악 조사하여 농작업과 휴식의 장소로 도시민에게 아늑함을 제공할 예정으로 현재 운영 노하우와 소개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3) 지혜를 살린 지역육성, 인재 육성지원사업 : 학생, 사회인 등이 정기적으로 농촌에 정주하면서 지역진흥책의 기획·입안에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지역육성 응원단(후루사토 응원대)으로 활동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0여마을에 학생들이 지역육성응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森の家-늘푸른계절 너도밤나무랑 졸참나무 숲에 둘러싸여 있어 몸과 마음을 정화 시키기에 좋은 장소이다.

기타 인재육성을 위한 인재은행의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발적발전론으로 지역지체의 운동(마을 만들기)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인재나 도시민의 아이디어를 지역활성화 컨설팅트로 이용하고 있다. (계속) ㉞

*농산어촌교류 활성화기구 홈페이지 주소:

(<http://www.kouryu.or.jp>)